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
들은 현 심리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
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스토리'
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
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뿐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
(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
다운 공주의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사항은 물론 교수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하여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
학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14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열세 번째
- 06 임상신경심리학 전공 곡세열 교수님 인터뷰
- 08 심리학과 21학번 총대 인터뷰
- 10 임상심리 동아리 싸이닉(PSYNIC)
- 12 "세상은 공평해!" 공평한 세상 오류
- 14 $p=0.049$ vs $p=0.051$
- 16 MBTI,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 18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20 스눴, 상대를 꿰뚫어보는 힘
- 22 영화 속의 심리학 - 엑스페리먼트
- 24 빅데이터 분석 기사
- 26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

청춘 13

우리들의 추억 그 열세 번째

강미현 기자

2022년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와 함께!



신입생 OT



2월 10일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OT를 고려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와 지역 이동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이므로 게임과 같은 재미를 위한 콘텐츠는 없지만, 학생회 소개와 수강신청 방법, 심리학과 과목 소개, 신입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학교 팁 등 대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자료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와 전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신입생을 위하여 자료집을 단독방에 올려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기와 선배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지만 만나게 될 날을 기약하며 입학 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안심박심 취업편



이번 안심박심 취업편은 방학 중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해 비대면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경찰, Wee 상담 교사, 게임 회사 등으로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강의로 구성되었고, 고학년을 위한 행사로 준비된 만큼, 취업에 관심이 많은 3학년, 4학년 학우님들이 많이 참가해주셨습니다. 앞서 나아간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시간을 내어 강의해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짧은 행사 짝선배



심리학과는 선후배 간 소통을 잘해왔던 학과였기에 짝선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올해는 선후배 교류의 부족함을 느껴 3월 중순 즈음 후배와 선배를 연결하는 짝선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짝지어진 선배님과 후배님은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선후배 간 우정을 돈독히 하였습니다. 짝선배에 지원한 재학생 선배는 16명, 짝후배에 지원한 신입생은 42명이었습니다!

새내기 놀이터



21학번 신입생이 주관하는 새내기 놀이터가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최근 유행하는 '캐치 마인드' 형식의 그림그리기와 다양한 콘텐츠로 선배, 동기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즐거움과 친목을 위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신입생 행사였습니다!

안심박심 학교편



5월 20일 안심박심 학교 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안심박심에는 복부전 신청, 학부 인턴, 성적 관리 팁, 교직 이수를 주제로 재학생 선배들이 새내기에게 유용한 팁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안심박심에서는 새내기뿐만 아니라 선배를 직접 만날 기회가 적었던 20학번 학우님들에게도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학부 인턴에 새내기와 재학생 학우님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우에게도, 학부 인턴을 소개한 재학생 선배에게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리학과 학술제



한 해의 꽃 심리학과 학술제가 11월 26일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7팀이 참가해주셨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전위된 공격행동'과 '부정적 댓글의 동조현상', 대학생의 일상과 가까운 '조별과제 사회적 태만'과 '시간 압박', 그리고 '온오프라인 자기 개방'과 '바넘효과', '외향성 수준에 따른 구매'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한 학술제였습니다! 교수님과 학우님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참가 팀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심리학 연구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고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덧붙여 심리학과 학술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해방도 깨비 밴드 동아리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임 교수님 인터뷰

임상신경심리학 전공 곽세열 교수님

강민주 기자



코로나로 인해 적막한 학교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9월부터 부산대 심리학과에 신임 교수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연구하시는 분야는 무엇인지 여러 궁금한 점들을 제가 대신 질문해보았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학기부터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함께하게 된 곽세열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진영 교수님의 임상신경과학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마친 후에 연구원과 강사로 일 했으며, 이번 학기부터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반갑습니다.

연구하시는 분야와 앞으로 교수님께 들을 수 있는 수업이 궁금해요.

지금까지의 제 주요 연구 분야는 노년기 인지장애와 정신건강, 그리고 뇌영상기법을 통한 정신장애의 위험요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회관계망이나 지적 경험이 어떻게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뇌영상으로 얻은 정보가 정신장애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는지, 신경표지가 결국 더 나은 심리학적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법을 다루는 심리평가 과목, 이상심리와 심리평가 및 치료적 면담의 실체를 다루는 임상심리학 과목, 노화와 발달 과정과 관련된 심리적 장애를 다루는 발달정신병리학 과목, 임상심리학 제반의 문제를 신경기능에 접목하여 살펴보는 임상신경심리학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연구 분야에는 어떻게 관심 가지게 되셨나요?

10년 전 이맘쯤이었는데, Marie Banich의 [인지신경과학과 신경심리학] 책에서 읽은 뇌손상 환자들이 보이는 기능 결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때엔 생물학적 환원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극이 된 것 같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심리적 곤란함을 딱딱 떨어지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신경심리학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 품었던 생각이 상당 부분 막연한 판타지였고, 뇌와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그 생각들이 당돌했다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 그 당시 품었던 한 줌의 광기가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공부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임상신경심리 연구실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연구실을 꾸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방법을 통해 임상심리학 제반의 연구문제를 개발해갈 학생, 또는 신경심리학적 연구와 통찰을 임상심리학의 실천적 문제(심리평가와 치료)에 접목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모든 배움에는 처음과 끝이 있겠지만, 심리평가와 이상심리학과 같은 임상심리학 주요 전공 및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친숙성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대학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수치스러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눈이 오던 어느 겨울밤 송년회를 하다가 제가 사라져서 친구들이 저를 한참이고 찾았다고 합니다 (해리성 둔주...). 저의 행동 패턴을 잘 알던 선배 형 덕분에, 제가 근처 피씨방에서 싸이월드 일기를 쓰다 잠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 차오른 감성을 어떻게든 기록에 남기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는 이 많은 흑역사 속에서 어쩌다 어른이 되어가나 봅니다. 모두들 성숙한 어른이 되는 길 위에서 파이팅입니다.

부산대에 대한 첫인상과 기대되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선배 교수님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것이 첫인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나는 학생들, 자기만의 연구를 해보고 싶은 학생들, 심리적 장애의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기대됩니다 :)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길고도 긴 코로나 블루에,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라 서글프고 처량해질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새겨 읽던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 한 줄을 아래에 전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파낸 한 덩어리 목직 한 체험을 함께 나누는 견실함을 신뢰하며, ..., ‘세상의 슬픔에 자기의 슬픔 하나를 더 보태기’보다는 자기의 슬픔을 타인들의 수많은 비참함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는 겸허함을 배우려 합니다.”

학생 인터뷰

심리학과 21학번 총대 인터뷰

이수빈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작년 이어 올해도 힘든 수험생활 끝에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을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배들도 새내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가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내기들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과 생각들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아보려고 심리학과 21학번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21학번 총대를 맡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심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중학생 때부터 심리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래 상담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상담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특히 학창시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셨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고자 심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눈치를 많이 보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임원과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어도 쉽게 포기하곤 했죠. 하지만 대학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면서 살자고 다짐했는데 총대 활동도 이런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또한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서투른 편이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지원한 것도 있어요.

대학 입학 시 가장 기대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는 학교나 집에서만 주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도 대부분 동네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제 스스로가 학교 밖에 존재하는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울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학교는 일단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니깐 훨씬 새롭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제 세상을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과 보다 좋은 추억을 쌓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생긴다 하더라도 제약이 많다 보니 그런 점들이 어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이 MT나 축제인데 그런 활동이나 행사들에 제약이 많아 너무 아쉽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동기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총대로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나요?

1학기 때 전공 수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비대면 수업이라 동기들끼리 인사를 나눌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부총대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서 줌을 통해 새내기들끼리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는 내에서 동기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기도 했어요. 학기 초에는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바빠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동기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일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행사는 무엇인가요?

MT와 축제를 가장 해보고 싶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대학 생활의 대표적인 로망이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 재밌고 좋은 추억들을 잔뜩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총대로서 동기들이 다같이 만나서 놀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보고 싶어요.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심리학과 21학번 총대 김지연 학생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누구보다 설레고 즐거웠을 대학교 1학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긴 새내기분들의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동기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한 김지연 학생에게 대단하고 고생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최근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디 별탈없이 진행되어 모든 학우분들이 대학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캠퍼스에 생기가 넘치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동아리 인터뷰

임상심리 동아리 싸이닉 (PSYNIC)

최서윤 기자



심리학에는 인지, 발달, 사회, 지각, 범죄, 광고, 산업, 상담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중에서도 임상심리학은 ‘심리학의 꽃’으로 불리며 많은 학생들이 전공하기를 원하는 분과 학문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에 따르면, 임상심리학은 심적 고통과 건강과 관련하여 심리 평가, 치료, 연구 등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한다.

우리 학과 동아리 중에서도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다. 이번엔 학과 임상심리 동아리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동아리 정보를 생생하게 탐색하려 한다. 지금부터 임상심리학에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심리학과 임상심리 동아리, “싸이닉(PSYNIC)”에 대해 알아보자!

Q. 안녕하세요.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은빈 안녕하세요! 임상심리 동아리 싸이닉(psynic)의 회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전은빈입니다.

시은 안녕하세요, 싸이닉 동아리원 19학번 박시은입니다!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싸이닉 동아리원인 심리학과 양지원입니다.

Q. 싸이닉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은빈 저희는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동아리로서, DSM-5에 분류된 정신장애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고, 조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몰랐던 개념, 통계에 관한 내용, 연구 동향 등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 학부생 때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니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원이 적은 편이라서 질문을 할 때도 편하게 하고, 함께 임상 심리사가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다는 등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신장애 관련 논문 분석과 임상 심리에 관한 자유로운 정보 공유 및 토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Q. 싸이닉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은빈 1주 혹은 2주에 1번 만나서 분석해온 논문을 발표하고,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거의 매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학점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기에, 시험 기간엔 잠시 쉬고 있습니다. 논문 분석과 발표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학부 동아리이다 보니 수준 높은 분석을 바라기보다는, 직접 논문을 읽고 요약해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각 개인은 최소 하나의 영어 논문을 읽어오기도 합니다. 영어 논문은 이해하기 이전에 읽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언젠가 겪어야 할 일하기에 미리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싸이닉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은빈 논문을 분석해오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논문을 읽고, 서로 토론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서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계에 조금 더 집중해볼까 합니다. 많은 조원들이 논문을 읽을 때 결과 해석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논문에 사용된 통계 기법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결과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갖추 수 있도록 동아리원들과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싸이닉에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시은 저는 임상심리 대학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임상과 관련된 동아리면서, 논문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들어왔어요. 학부생은 논문을 많이 접할 일이 별로 없는데, 동아리 활동으로 논문 리뷰를 한다는 점이 가장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 저도 임상심리 대학원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활동을 하며 관련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 함께 논문을 읽고 논의한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Q. 싸이닉에서 어떤 활동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시은 임상과 관련된 논문 리뷰는 이후에 다른 심리학 전공 강의를 듣거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알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을 수 있고, 더 새로운 개념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같은 정신장애나 치료법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넓은 배경지식을 갖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원 논문을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주기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또, 낯설었던 논문이나 임상심리와 관련한 용어에 익숙해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어요.

Q. 싸이닉에 들어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시은 논문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활동하면서 단순히 논문을 많이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읽어 온 논문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확장된 지식을 얻는 활동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서로 질문을 제기하고,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는 활동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역시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원 동아리원들 모두 임상심리학에 흥미가 있고, 다들 대학원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에 관심이 있거나,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상 심리에 대해 흥미가 있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리학과 임상심리 동아리, 싸이닉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아리원들과의 인터뷰로 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동아리원들은 싸이닉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고, 특히 논문 리뷰를 큰 강점으로 꼽았다. 어떤 대학원이든 진학하고 난 후에는 다양한 논문을 읽어야 하기에, 학부생 때부터 다양한 논문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임상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사람, 임상심리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싸이닉에 주목해보는 것이 어떨까.



“세상은 공평해!” 공평한 세상 오류

문성민 기자



저 사람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확진된거야!

마스크 좀 철저히 쓰고 다녔어야지. 나는 정말 확진되는게 이해가 안 돼! 꾹꾹...



최근 코로나19 확진 기사를 보고 친구가 한 말이다. 정말로 확진된 사람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절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의 진술처럼 특정 사건의 원인이 전적으로 당사자가 원인인 양 말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영향력을 매우 과소평가 한 채 개인적인 요인만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세상은 통제된 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우연적이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경향을 공평한 세상 오류라고 한다.

공평한 세상 오류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미국 사회심리학자 멜빈 러너(Melvin Lerner)와 캐럴린 시먼스(Carolyn Simmons)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전기 충격을 받는 척을 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험참가자들은 이 여성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왜 그러한 전기 충격을 받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와 성격을 나쁘다고 보고했고, 심지어 일부는 그녀가 전기 충격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고했다. 즉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성이 무언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실험에서는 두 사람에게 퍼즐을 풀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금은 승패와 관계없이 둘 중 아무에게나 수여했는데, 이 사실을 실험참가자들은 모두 관찰했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사람들은 상금을 받은 사람이 더 똑똑하고, 재능 있으며, 퍼즐을 잘 푸는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즉 사람들은 임의로 상금이 수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잘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 멜빈은 사람들이 ‘세상은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공평하고 공정한 곳’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공평한 세상 오류라는 가설로 처음으로 이론화 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향성이기 때문에 없애지도, 바꾸지도 못한다. 안타까운 점은 불변하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 문제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본적 귀인 오류로 인해 피해자를 꾸짖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사람들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채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내적 특성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이다. 2014년 발생한 이 사고는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27명의 관객이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환풍구가 붕괴되어 모두 추락한 끔찍한 사건이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사고 후에 발생했는데, 사고의 기사, 뉴스 동영상의 댓글 반응 대부분이 희생자들을 탓하는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거길 왜 올라가냐, 자업자득이다.”,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나, 벌 받았다고 생각하라.” 등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며 피해자들을 꾸짖었고, 심지어 비속어를 섞으며 비난하는 댓글 반응도 존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풍구 부실시공이 원인이었고,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이 분명하여 법적 처벌도 진행된 사실이 있다. 이처럼 개인 외적인 영향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본적 귀인 오류를 저지르며 피해자를 탓하기 때문에 공평한 세상이라는 믿음을 공고히 하고, 그 결과 더욱 각박하고 매정한 세상을 만들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안전 불감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은 공평하고, 공정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절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안정감과 위안을 얻게 되고 안전에 대해 점점 무지하게 되며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공평함에 대해 맹신함으로써 세상의 불공평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은 순기능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세상의 불공평성에 대한 맹점을 만들게 된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노력은 결국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고 공평한 세상이라는 믿음에 더욱더 집착하게 만들므로써 무능력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공평함이라는 매력적인 단어에 혹해버린 사람들은 세상은 공평한 곳이라고 믿음으로써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감에 따라 겪는 피로감으로부터 도피해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심사숙고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현실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여러 사건들이, 타인의 행동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진정으로 각자의 내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동적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을 인식해나가고 성장해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평한 세상 오류로 생긴 여러 문제를 타파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좀 더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오류가 가져다주는 편안함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데이비드 맥레이니, 박인균 역, 『착각의 심리학』, 추수밭, 2012.



p=0.049 vs p=0.051

영가설 유의성검정

노치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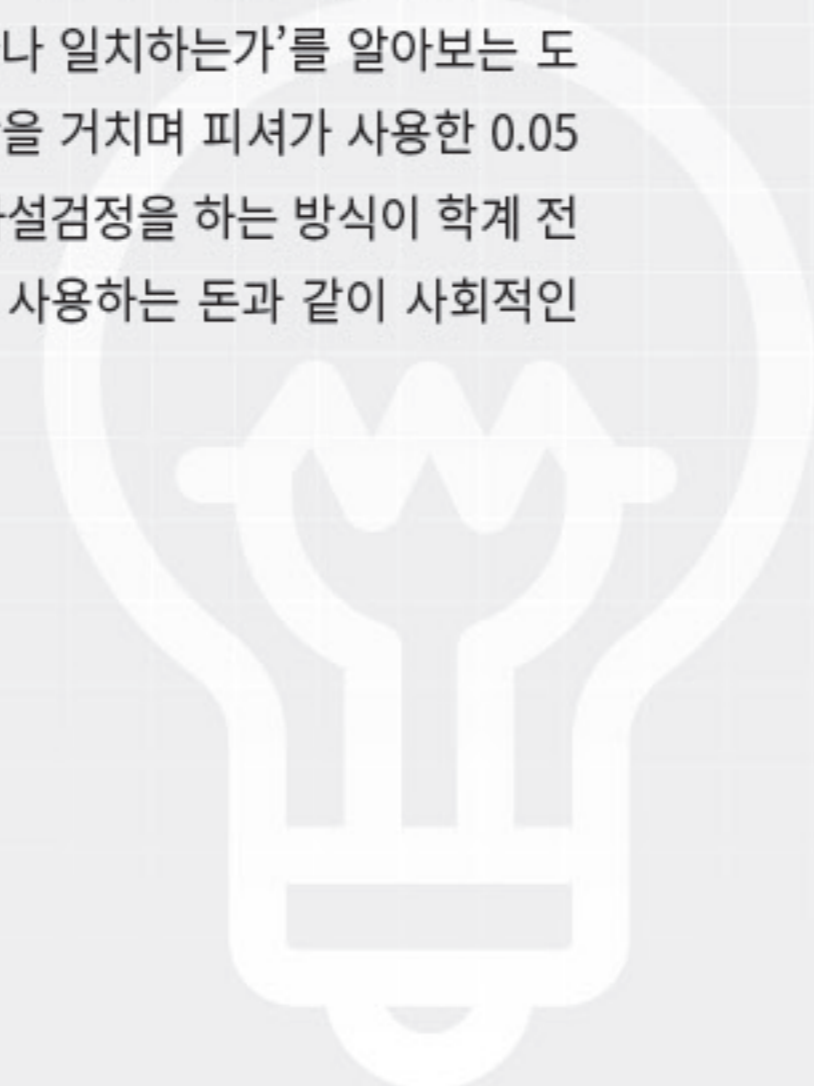
“p<0.05이므로 영가설을 기각한다.”라는 말. 심리통계 강의 및 각종 논문 등에서 한번쯤 접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영역의 연구에서 영가설 유의성검정(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ing, NHST) 절차에 따라 과학적 가설검정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유의성검정 절차의 핵심은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대립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영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때 영가설의 검정은 주로 ‘p값’을 계산하여 활용하는데, p값은 영가설이 옳다고 가정할 때 얻은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실제로 관측될 확률이다. p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영가설과 데이터가 불일치함을 뜻한다.

심리학을 포함하여 여러 과학분야의 연구에서 p=0.05이 일종의 기준점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Ioannidis, J. P., 2019). Chavalarias, D. 등(2016)의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생물의학 문헌들의 96%가 p=0.05이하의 p값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데이터를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영가설을 기각한다. 이는 연구자의 가설이 참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으며, 여러 분야의 논문들에서 0.05보다 작은 p값 옆에 별표(*)를 달아 영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낸다. 속칭 ‘별이 떴다’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유의확률이 0.049인 연구와 0.051인 연구는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까? 전자는 .05보다 0.001이 작아 영가설의 기각이 가능하고, 후자는 .05보다 0.001이 커 영가설의 기각이 불가능하다. 더욱 극단적으로 0.049999와 0.500001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의성검정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차이’까지 ‘유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유의성 검정은 연구자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의 p값이 0.05보다 작은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통계분석 절차를 바꾸거나,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칠 만한 독립변수만 사용하거나, 또는 ‘p값 잘라내기(p-hacking)’ 등 연구자가 임의로 p값을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의성 검정의 문제점들은 출판 편향, 서랍장 효과, 그리고 재현성 문제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유의성 검정을 기반으로 가설검정을 하는 절차가 왜 이렇게 일반적인 것이 되었을까? p값을 이용한 가설검정 방식이 널리 퍼지는데 로널드 피셔(Ronald Fisher)의 기여가 매우 컸는데, 그는 p값과 임의적인 기준을 이용한 이분법적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 0.05나 0.10 등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고, p값은 그 자체의 의미 ‘영가설과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알아보는 도구였을 뿐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피셔가 사용한 0.05의 p값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가설검정을 하는 방식이 학계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모두가 사용하는 돈과 같이 사회적인 것이 되었다(Goodman, 2019).



그럼에도 학자들은 유의성검정의 이분법화 문제, 그리고 이를 과학적 가설검정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 것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Benjamin 등(2018)은 p값의 기준을 0.05에서 0.005로 낮추고, p값이 기존의 0.05보다 작고 0.005보다 큰 결과는 ‘제안적인(suggestive)’ 결과로 보자고 제안했다. ‘제안적인’ 연구 결과들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McShane, B. 등(2016)은 p-value를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유의성검정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5년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BASP)>라는 한 사회심리학 학술지에서는 유의성검정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금지하기도 했다(Woolston, C., 2015).

지금까지 영가설 유의성검정(NHST)이 무엇이고, 그것을 과학적 가설검정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제안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심리학에서도 과학으로서 통계적 절차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유의성검정 절차 또한 매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심리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유의성 검정과 p값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

Benjamin, D. J., Berger, J. O., Johannesson, M., Nosek, B. A., Wagenmakers, E. J., Berk, R., ... & Johnson, V. E. (2018). Redefine statistical significance. *Nature human behaviour*, 2(1), 6-10.

Chavalarias, D., Wallach, J. D., Li, A. H. T., & Ioannidis, J. P. (2016). Evolution of reporting P values in the biomedical literature, 1990-2015. *Jama*, 315(11), 1141-1148.

Goodman, S. N. (2019). Why is getting rid of p-values so hard? Musings on science and statistics. *The American Statistician*, 73(sup1), 26-30.

Ioannidis, J. P. (2019). What have we (not) learnt from millions of scientific papers with P values?. *The American Statistician*, 73(sup1), 20-25.

Ioannidis, J. P. (2019). What have we (not) learnt from millions of scientific papers with P values?. *The American Statistician*, 73(sup1), 20-25.

McShane, B. B., & Gal, D. (2016). Blinding us to the obvious? The effect of statistical training on the evaluation of evidence. *Management Science*, 62(6), 1707-1718.

Woolston, C. (2015). Psychology journal bans P values. *Nature*, 519(7541), 9-9.



MBTI,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유혜원 기자

MBTI를 맹신하는 현대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MBTI이다. 우리 주변에는 MBTI가 유사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MBTI에 과몰입하여 모든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사람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렇다면 MBTI는 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검사를 받고, 어떻게 검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MBTI란?

MBTI는 칼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고안한 성격유형지표이다.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개인이 선호하는 인식과 판단 경향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4가지 선호 경향

출처: 한국MBTI연구소

외향 (Extraversion)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에너지 방향

내향 (Introversion)

깊이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



감각 (Sensing)

오감에 의존하여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 철저히 일처리한다



인식기능

직관 (Intuition)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처리



사고 (Thinking)

진실과 사실에 주안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판단기능

감정 (Feeling)

사람과 관계에 주안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



판단 (Judging)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계획하고 체계적이다



생활양식

인식 (Perceiving)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MBTI 검사

검색창에 MBTI를 검색하면, 16 personalities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분이라는 짧은 검사시간 안에 무료로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이다. 하지만 해당 온라인 성격유형검사는 영국에 있는 무자격 회사에서 만들었고 타당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과의 신뢰성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성격유형 끝 부분에 A나 T를 붙이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이트에서 검사를 받으면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MBTI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정식 검사도구인 '마이어스-브릭스 유형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본 검사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한국과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검증받았다.

검사할 때마다 다른 MBTI 유형이 나와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한국MBTI연구소 연구부장 김재형의 인터뷰에 따르면, MBTI는 개인의 선천적인 선호를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검사 당시의 순간적인 성향에 따라 응답하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검사 당시의 기분, 날씨, 컨디션 등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부산대학교 재학생은 효원상담원에서 무료로 MBTI 성격유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요시간은 약 20분이며, 결과 해석 상담까지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효원상담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MBTI,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현재 통용되는 사설 MBTI 검사는 쉽고 직관적이며 흥미롭지만, 통계적 설명력 부족과 오남용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MBTI에 근거한 연애공학과 같이 유사과학을 추종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공인된 검사 기관에서 제대로 검사한다면 자신의 선천적인 기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0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100가지 성격이 존재한다. 즉, MBTI 결과상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모두 똑같지 않다는 말이다. MBTI에 과몰입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심리학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엄상현 기자

저자 리사 펠드먼 바렛 / 역자 최호영 / 출판사 생각연구소 / 2017.09.22.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정서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대조되는 능동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사 펠드먼 바렛은 25년간 자신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새로운 관점으로 ‘정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서란 무엇일까?

정서란 무엇일까요? 정서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기에 정서의 정체와 정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날 일이 있어서 화가 나는 거고 슬플 때는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심리학도의 용어로 말하자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서가 느껴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극과 반응으로의 정서

저희가 심리학개론에서 배우는 초기 정서 이론 중 제임스-랑게 이론은 자극-신체적 반응-정서의 지각 순서로 정서를 느낀다고 주장하였고 캐논-바드 이론은 신체적 반응과 정서의 지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서 이론의 초기부터 신체적 반응과 정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죠. 나아가, 폴 에크만의 기본 정서 이론에서는 각각의 정서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정서 표정이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은 폴 에크만의 감수를 통해 제작된 영화입니다. 영화는 각각의 감정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렇듯 기본 정서 이론은 미디어 뿐만 아니라 많은 응용 영역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고 현재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얼굴과 신체에 드러나는 반응들을 통해 감정을 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 이죠. 과연,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정서를 알 수 있을까요?



정서는 구성되는 것

노스이스턴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하버드 의과대학원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 의학과 의사이기도 재직 중인 이 책의 저자, 리사 펠드먼 바렛은 위의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정이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어 그냥 일정 조건 하에 발동되어 표현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에 이미 감정 회로가 배선되어 있다고 감정 회로를 타고 났다고 믿고 계실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감정 회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 어떤 뇌도 감정 회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추측입니다. 감정은 수십억개의 뇌세포가 일하고 있는 뇌 속에서 한 순간 일어나는 생각이요 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뇌가 예측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구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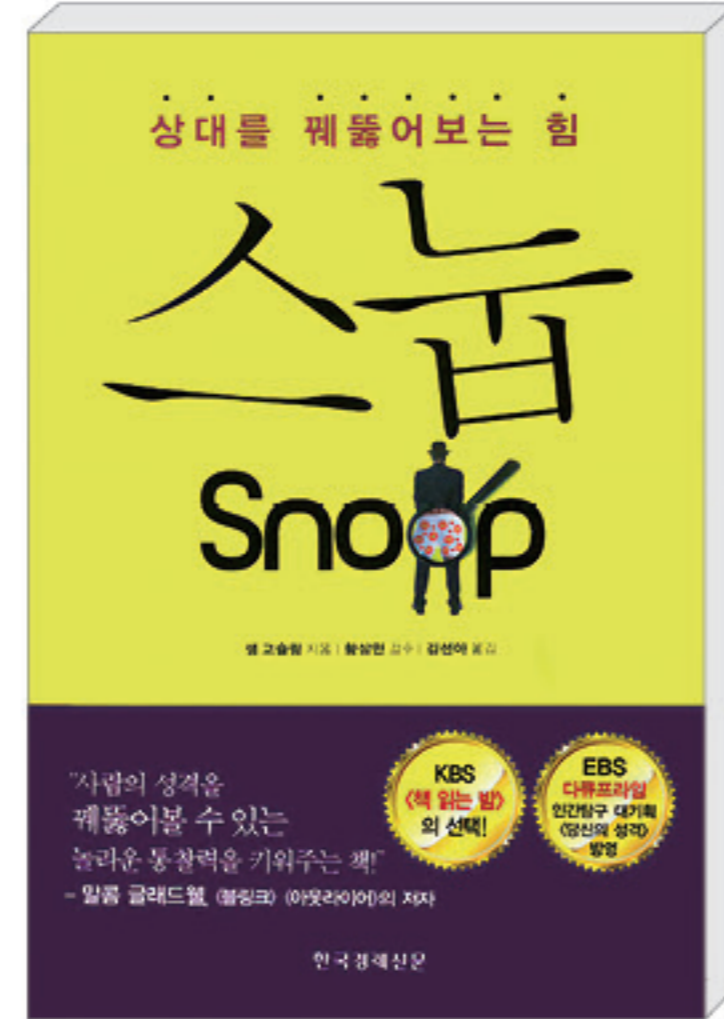


심리학적 증거들을 통해 정서를 바라본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추구하는 심리학도로서 읽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스누프 상대를 꿰뚫어보는 힘

오혜진 기자

저자 샘 고슬링 / 역자 김선아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 2010.05.10.



흔히 심리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는가? 심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것을 심리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어쩌면 독자들의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책이 아닐까 싶다.

스누핑이란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단지 생활하는 장소나 소지품을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된 집을 본다면 사람들은 꼼꼼하고 단정할 것이라 예상하는 등의 행위를 스누핑이라 하는 것이다. 스누핑은 특정 단서가 특정 성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스누퍼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속에 흔적들을 남기는데, 정체성 주장, 감정조절장치, 행동잔여물 이 세가지가 대표적인 흔적이다. 정체성 주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이것을 보고 나를 이렇게 판단해주세요.’를 나타낸다. 스스로에 대해서 드러내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감정조절장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이다. 자신의 추억이 담긴 물건 혹은 가족의 사진, 좋아하는 음악들이 이에 포함되는데,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행동 잔여물은 생활의 흔적으로, 무언가를 먹다 만 흔적이거나 폭 꺼진 소파 등이 있다. 이는 장기간 형성된 그 사람의 습관과도 같은 흔적이기 때문에 성격을 추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자는 OCEAN 모델을 통해서 성격을 분석했는데, 각각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s), 동조성(Agreeableness), 신경성(Neuroticism)이다. 각 유형들에 점수를 매기며 성격을 분석하는데 흔하게 우리가 말하는 성격을 분석해서 정의내리는 것이 아닌, 점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통찰을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첫인상은 강렬한 감정이다.**
‘사고의 기준화’ 우리는 처음 접하게 되는 정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눈에 띄는 물건들은 핵심적인 단서를 주기도 하지만 혼란을 주곤 한다.
- 2 엉뚱한 단서에서 의미를 유추한다.**
각기 다른 정보를 단순 합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정보를 파악할 때는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정보를 잡아내야 한다.
- 3 상관없는 단서를 활용한다.**
관찰 대상의 외모 등이 추가적인 정보를 줄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만, 외모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확신을 주지 않는다.
- 4 틈새에 맹점이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도 존재한다. 또,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공존한다.
- 5 아는 만큼만 보인다.**
관찰자의 전문적인 지식(ex. 악기나 술의 종류)은 성격 판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스누프의 매력이라 함은 아마 총체적으로 파악해야만 하는 것일 것이다. 사람은 단편적으로 봐서는 무엇도 단정할 수 없다. 그저 그럴 것이라는 확률만 존재할 뿐.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준다. 사람을 알아보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스누프. 흥미가 생긴다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영화 속의 심리학

엑스페리먼트

(The Experiment, 2001)



시나브로엔터테인먼트 / 스릴러, 드라마 / 2002.03.22. 개봉 / 109분 / 독일 / 청소년 관람불가 / 올리버 히르비겔 감독

이 영화는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에 의해 설계되고 실행된 ‘스탠포드 감옥 실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든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있으며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의지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다. 사람에게 내제된 권력에 대한 열망은 자신이 맡은 역할로 완성이 된다. 어느 누구라도 권력이 주어지면 그 칼날을 휘두르기 마련. 특정한 환경에서 권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심리학도라면 한번쯤 이 영화를 보길 추천한다.

정나래 기자



"실험이 시작된 순간 당신은 해체된다!"

- 336시간의 인간조작 실험

필립 짐바르도의 스탠포드 감옥 실험

스탠포드 감옥 실험(Stanford prison experiment, SPE)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심리학 교수가 1971년에 한 심리학 실험이다. 70명의 지원자 중 대학생인 24명이 선발되어 죄수와 교도관역을 맡았으며 역할은 무작위로 정했다. 죄수자 집단에게는 실제 죄수들처럼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죄수복을 입혔으며 죄수번호를 붙혀 이 번호로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간수자 집단에는 간수자 유니폼을 입히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했으며 곤봉을 쥐어줬다. 그리고 실제 감옥처럼 설계된 스탠포드 대학교의 지하 세트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2주간 지내기로 했다. 짐바르도 교수의 의도는 정당화 된 권력이나 권위가 개인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내고자 설계한 실험이었다. 이 후 실험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역할 놀이인 것을 아는 것처럼 서로 어색해하고 조심해하며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간수들이 점점 가학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고 죄수들이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두려움을 나타내 결국 실험 6일만에 중단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간수들은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생리적 현상을 통제하는 등 과몰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2주 간으로 계획되었던 이 실험은 단 6일 만에 종료되었다. 단순한 역할놀이가 아닌 실제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간수들은 폭력을 간수 역할이라는 정당한 권력 아래서 휘둘렀던 것. 이 상황은 사람이 절대적인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위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 실험은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사회적 상황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인간의 본성인가, 사회 환경의 영향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가 저질렀던 대규모 인종청소 등의 끔찍한 전쟁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사람들은 인간이 저지르는 타인에 대한 악행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인간에서만 존재하는 어떠한 잔인한 특질이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필립 짐바르도는 때때로는 매우 선한 인간마저도 특정 사회적 상황 안에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악마와도 같은 행동을 저지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폭거를 저지른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한 사회 시스템과 그 사회 시스템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인 나머지 사회구성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이 저지르는 타인에 대한 악행의 원인

- 첫째** 인간이 타인을 학대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상황은 대단한 힘을 가진다. 부하에 대한 상관의 학대는 ‘군대’라는 단절되고 상하관계가 명확한 곳에서 일어났다. 비행기 이륙을 지연시키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항공사 임원의 폭거에 대하여 항공사는 항공보안법보다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우선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갑질은 그들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자, 즉 고립성과 독자적 권위성을 잃게 되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 둘째** 최소한 이들의 악행이 지속되는 동안 이들은 평소에 비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스탠포드 감옥실험에 선발된 24명은 심리검사를 통하여 정신건강이 파악된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단 5일만에 타인에게 끔찍한 학대를 저지르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학대행위가 교도소 내부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행위임을 확신했었다. 영화는 서로 농담을 주고 받으며 가족 사진을 서로에게 보여주던 평범한 사람들이 점차 끔찍한 학대자와 무기력한 피해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 셋째**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거 주변에는 언제나 침묵하는 제 삼자가 있었다. 감독은 실험 참가자의 심리상태 못지않게 실험설계자들의 심리 변화를 중요하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연구진만이 실험 중에 일어나는 행위의 비도덕성을 비판하였다. 실험을 설계한 연구진들마저도 제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가해자에게 동조했던 것이다. 실험의 책임자 필립 짐바르도는 훗날 감옥이 통제불능상태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무관심을 ‘악’이라고 규정하였다. 악행이 일어나는 곳에서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제 삼자는 사실 ‘무관심한 타인’이 아니라 ‘침묵으로서 동의하는 공범자’라는 것이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현우 기자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각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등 국가, 기업의 주요 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양질의 공급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데이터분석(준)전문가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가자격인 빅데이터분석기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의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과 저장 및 처리, 빅데이터의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빅데이터분석기사는 필기와 실기에 모두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필기는 4개 과목에서 각 20문제씩 총 8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1과목인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분석 계획 수립과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과목인 빅데이터 탐색은 데이터를 불러온 이후 과정인 데이터 전처리, 전반적인 EDA(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과 함께 간단한 기술통계, 추론통계학적 지식을 점검한다. 3과목인 빅데이터 모델링은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다루고 상황별 적절한 분석 기법과 데이터 분할 등의 분석 절차를 확인한다. 4과목인 빅데이터 결과 해석은 모형의 주요 평가 지표와 모형을 개선하는 방법, 모형을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결과를 적절하게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다.

실기는 필답형(단답형) 10문제와 작업형 제1유형, 제2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답형은 개념에 대한 설명 후 이를 묻는 간단한 주관식 문항이다. 작업형 제1유형과 제2유형은 앞으로 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 바뀔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1유형은 전처리를 통해 분석 직전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을 문제로 출제한다. 한편 제2유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실제 분석을 진행하되, 기준 이상의 예측력을 보이면서 총 작동 시간이 1분 미만이어야 한다.

물론, 심리학도들이 왜 이런 자격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 방향인 모형 주도적 분석(Model-driven Analysis)과 빅데이터 분석이 추구하는 자료 주도적 분석(Data-driven Analysis)은 그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¹⁾ 김청택(2019)에 따르면, 심리학 연구에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 주도적 분석을 심리학 연구 방법에 사용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학 연구에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낯선 분석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 태도나 믿음’에 관한 정보는 연구를 위해 제작된 설문지에 응답한 자기보고식 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예측 자체가 중요한 임상심리학(진단), 소비자심리학(고객 세분화 또는 구매 예측) 분과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은 ‘기사’급 자격증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그에 준하는 졸업예정자가 응시 가능하다. R로도 실기를 치를 수 있어 코드 작성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데이터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이전 호에서 소개했던 자격증을 이미 취득했다면, 데이터 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할 동기는 충분할 것이다.

1) 김청택. (2019).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리학 연구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4), 519-548.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

고수빈 기자

취업을 위해서는 관심 분야의 학점, 자격증, 대외활동 등 소위 스펙이라 일컫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청소년 상담 분야로 진로 방향을 설정했거나 특히 심리학과 학생이라면 주목할 만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바로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이다.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과 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 정서 및 진로·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한다. 기본적인 상담 업무 외에도 주로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 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요건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상담분야 4년제 학사

심리학과 학생이 해당 자격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응시요건에 있다. 심리학과 학사를 취득하면 기타 상담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3급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상담사 3급 취득절차

- 1 응시자격을 갖춘 후, 필기시험 합격
필기 과목
(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2 면접시험 합격
- 3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 이수 (100시간 이상)
- 4 자격증 교부

청소년상담사 3급 취득 이후, 상담 실무경력을 쌓으면 추후 2급, 1급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이는 심리학 전공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은 상담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상담은 사람을 마주하는 일기기에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무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1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2월 신입생 OT, 학위수여식

3월 개강총회, 신입생·복학생 MT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18학번
문성민

18학번
유혜원

18학번
최서윤

19학번
강미현

19학번
이수빈

20학번
오혜진



박사 21학번
엄상현



석사 20학번
고수빈



석사 20학번
정나래



석사 21학번
강민주



석사 21학번
노치현



석사 21학번
이현우

그동안 프시케스토리는 창간호를 시작하여 이번 14호까지 매 년마다 하나씩 출간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만든 프시케 스토리는 이제 심리학과 페이스북 그룹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http://psy.pusan.ac.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프시케 스토리에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프사케 Story

발행일 2021. 12. 0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